

한국잡지협회 정기총회 남궁영훈 CM미디어 대표 신임 회장 당선



한국잡지협회(회장 이창의)는 지난 2월 21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강당에서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윤형두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등을 비롯해 잡지발행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년 임기의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 이창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년간 회원들이 보내준 사랑과 격려속에서 의욕적으로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잡지협회를 언론단체로 위상을 격상시키고, 4~5억원에 불과하던 잡지협회 예산도 잡지교육원 예산까지 합치면 27억원까지 늘었다. 이러한 성과는 잡지협회 회원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감사보고, 2012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안) 승인, 2013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안) 승인, 임원선출, 기타사항 순으로 진행됐으며, 상정된 의안은 모두 원안대로 처리됐다.

이어진 임원선출에서는 회장 및 감사 2인이 선출됐다. 신임회장에는 남궁영훈 CM미디어(주) 대표, 감사에는 심인 서강엔터프라이즈 대표, 노영선 전우문화사 대표가 선출됐다.

남궁영훈 신임 회장은 ▲잡지발전기금 50억원 조성 ▲협회 행정 혁신 및 회무 전산화 ▲디지털매거진 포털사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알려 드립니다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와 지방 인쇄조합의 정기총회 기사는 4월호에 일괄 게재할 예정입니다.

한국출판학회 정기총회 부길만 동원대학교 교수 신임 회장 선임



한국출판학회가 지난 2월 21일 출판문화회관 4층 대강당에서 201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으로 부길만 동원대 교수를 선임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된 이날 행사는 이문학 한국출판학회 총무이사(인천대 교수)가 전체 사회를 맡

아 제1부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 선정·지원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공청회, 제2부 ‘제33회 한국출판학회상 시상식’, 제3부 2013년도 정기총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제1부 공청회는 신종락 성균관대 정보관리연구소 연구원과 한주리 서일대 교수의 발제에 따라 토론자로 나선 권혁재 한국학술출판협회 회장,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부길만 동원대 교수, 홍석근 평사리 출판사 대표, 홍영태 한국출판인회의 정책위원장, 비즈니스 북스 대표 등의 패널과 방청객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제2부 한국출판학회상 시상식에서는 기획·편집부문, 경영·영업부문, 특별공로부문에서 (주)한림출판사(대표이사 임상백), (주)김영사(대표이사 박은주), 한국대학출판부협회(회장 권원순)가 각각 출판학회상을 수상했다.

제3부 2013년도 정기총회는 이정일 일진사 대표에 대한 감사패 수여, 2012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정관 개정, 회장선출,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보고, 기타 안건, 신임 회원 소개 및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는데,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처리됐다.